

손·발 안맞는 호랑이

〈수비〉 〈주루〉

KIA 최근 3연승 뒤 3연패 팀 홈런 3위·장타율 1위 양현종·헥터 등 활약에도 수비·주루 고민에 한숨만 kt·한화 상대 반전 노려야

매 시리즈마다 다른 모습, 고민은 같다. 종잡 수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KIA는 지난주 3연승 뒤 3연패로 제자리 걸음을 했다.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장단 18안타의 맹공으로 시즌 첫 싹쓸이 3연승을 완성했던 KIA는 주말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넥센전에서는 3연패를 안고 돌아왔다. 한기주가 출격한 첫 경기에서 두 개의 만루포를 맞는 등 초반 기싸움에서 밀린 KIA는 두 경기에서는 뒷심 싸움에서 지면서 넥센에 시즌 첫 싹쓸이 패를 기록했다.

매 시리즈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와 결과를 내고 있는 KIA. 그 속에 내재한 고민은 같다. 수비와 주루다.

최근 6경기에서 일찍 무너진 한기주를 제외하고는 선발진들은 제 역할을 해냈다. 8이닝 4실점(3자책)의 양현종을 필두로 헥터가 두 경기를 7이닝 1실점, 6이닝 4실점(1자책)으로 책임졌다. 임시선발로 나선 좌완 임기준도 5이닝 1실점의 활약을 해줬고, 화끈한 공격 지원을 받은 지크는 6이닝 1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부상대란 속에서 불펜도 든든하다. 끝내기 패가 남았지만 흥건희는 롯데와의 두 경기에서 1홀드 1세이브로 1점차 승리를 지켜냈다. 김광수도 시즌 첫 세이브를 신고하는 등 마운드는 안정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공격도 지난해에 비하면 뜨겁다. 지난 시즌과 정반대 행보를 하고 있는 나지완-이병호 두 축을 중심으로 필드 꾸준하다. 0.279위로 팀 타율 6위의 KIA는 경기당



7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6 타이거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넥센 2회말 1사 2루에서 7번 김하성이 1타점 2루타를 치고 2루에서 KIA 서동욱의 태그에 앞서 세이프 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평균 1.03개의 홈런을 터트리며 홈런 부문 3위, 장타율은 0.441로 NC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1위에 올라 있다.

하지만 KIA의 순위는 9위다. 수비 실수로 실점이 쌓이고, 주루에서 득점이 막히고 있다. 넥센전 3연패를 통해 KIA의 약점을 되짚어 볼 수 있다.

6일 고척돔에서의 첫 경기에서 KIA는 유격수 자리에 김주형을 세웠다. 인조잔디라는 경기장 특성, 최근 페이스를 감안하면 강한울의 선발이 예상됐지만 김주형이 막중한 임무를 맡았고, 결과는 실패였다. 인조잔디에 가속도가 붙은 타구를 쫓지 못하면서 아웃카운트가 더디게 올라갔고, 한기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넥센의 득점은 실세없이 올라갔다.

아쉬웠던 한결함도 있었다. 7일 양현종

의 완투패에 결정적인 한방을 날린 것은 넥센 주장 서건창이었다. 3-3으로 맞선 7회말 선두타자 나와 우전안타를 때린 서건창이 고종욱의 안타와 땅볼로 3루까지 진루했다. 그리고 양현종의 폭투로 홈까지 파고들었다. 서건창은 "몸이 앞서서 움직였다"고 말했다. 투 아웃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 서건창은 과감하게 홈을 파고들었고, 경기는 4-3 넥센의 승리로 끝났다. 서건창의 센스와 함께 KIA 배터리의 낮은 수비대처가 아쉬웠던 대목이었다.

공격 강화를 위해 선택한 '김주형 유격수 카드'는 시즌 초반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잇단 실수와 투·타의 잇박자 속에 뜨거운 키워드가 됐다. 여기에 지난 시즌 2루에서 알짜배기 활약을 해주던 김민우의 부진 속에 서동욱을 중심으로 공격

형 키스톤 콤비를 구성했지만 공격의 응집력이 떨어지면서 수비 역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설상가상 필드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수들의 부담감이 커졌다.

또 공격력 극대화를 위해 선택한 라인업이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KIA의 플레이를 목직하게 만들고 있다. 넥센이 빠른 발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뛰면서 KIA 수비진을 압박한 것에 반해 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오지 못하는 KIA 주자들의 모습이 대비된다.

KIA는 이번 주 kt와 한화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홈 6연전을 치른다. 앞선 실패의 원인은 확실하다. 이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학강초, 광주야구협회장기 초등야구 우승

학강초 야구부가 2016 광주야구협회장기 초등야구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학강초는 최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협회장기 야구대회에서 서석초를 10-8로 꺾으며 우승을 확정했다. 토너먼트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첫 상대 수창초를 8-0, 4회 콜드게임으로 제압한 학강초는 서림초와의 경기에서는 11-5 승리를 거뒀다. 학강초는 서석초까지 제압하면서 3연승으로 대회 정상에 올랐다.

◇시상내역

▲우승:학강초 ▲준우승:서석초 ▲최우수선수상:정석현(학강초) ▲우수투수상:배광률(학강초) ▲타격상:박민서(3타수3안타·서림초) ▲최다도루상:정태백(5개·학강초) ▲최다타점상:김유현(11타점·서석초) ▲감투상:하상욱(서석초) ▲미기상:임시열(학강초) ▲감독상:최태영(학강초) ▲지도상:박후연(학강초 교장)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PGA 준우승 양희영...세계랭킹 6위로 상승

양희영(27·PNS)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2주 연속 우승을 놓쳤지만, 세계랭킹을 끌어올렸다.

양희영은 9일 발표된 세계여자골프랭킹에서 5.98점을 받아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오른 6위에 자리했다.

양희영은 지난주 텍사스 스타아웃에 이어 요코하마 타이거 클래식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 중에는 2위 박인비(28·KB금융그룹) 다음으로 높은 순위다.

양희영의 랭킹이 올라가면서 김세영

(23·미래에셋)는 7위, 전인지(22·하이트진로)는 8위로 각각 한 계단씩 내려갔다.

오는 8월 열리는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는 상위 4명이 나갈 수 있다. 장하나(25·비씨카드)는 9위, 이번 대회에서 공동 10위를 차지한 유소연(26·하나금융그룹)은 11위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9)는 여전히 1위를, 8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샬롱스컵에서 우승한 렉시 톰프슨(미국)은 3위를 지켰다. /연합뉴스

연장전 강심장

왕정훈 유럽프로골프 투어 하산 2세 트로피 우승

재미등포 제임스 한 PGA 웰스파고 챔피언십 제패

15m 버디퍼트 성공 '행운의 18번홀'



2차 연장서도 6m 버디 성공

왕정훈(21)이 유럽프로골프 투어 하산 2세 트로피(총상금 150만 유로)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왕정훈은 9일 모로코 라바트의 로열 골프 다르 에스 살람(파72·748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의 성적을 낸 왕정훈은 나조 엘비라(스페인)과 연장전에 돌입, 연장 두 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아 우승 상금 25만 유로(약 3억3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 선수가 올해 유럽프로골프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지난달 선전 인터내셔널 이수민(23·CJ오쇼핑) 이후 두 번째다. 통산으로는 최경주, 위정수, 양용은, 노승열, 정연진, 안병훈, 이수민에 이어 8번째 한국이다.

왕정훈은 4라운드 17번 홀(파3)을 마쳤을 때까지 엘비라에게 1타 뒤진 2위였다. 그러나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약 5m 정도 거리의 만만치 않은 버디 퍼트에 성공하며 승부를 연장으로 넘겼다.

왕정훈에게 18번 홀은 이날 '행운의 홀'이 됐다. 18번 홀에서 진행된 1차 연장에서 왕정훈은 거의 15m 정도 되는 거리의 버디 퍼트를 집어넣으면서 다시 한 번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엘비라는 결국 2차 연장에서 흔들렸다. 티샷이 왼쪽으로 밀렸고 세 번째 샷으로 공을 그린에 올리기는 했으나 이것이 굴러내려 가며 버디를 잡기 어려운 곳으로 향했다.

반면 왕정훈의 세 번째 샷은 홀에서 약 6m 정도 거리에 놓였고, 왕정훈은 다시 한 번 '행운의 홀'이 된 18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엘비라의 추격을 따돌렸다.



왕정훈은 "지난밤에 거의 잠을 못 잤다"며 "마지막 3개 홀 연속 버디는 어떻게 한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기뻐했다.

그는 "그저 버디를 잡겠다는 생각만 있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친한 사이인 이수민 선수가 지난달에 우승해 기뻐했는데 나도 이렇게 정상에 올라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계 랭킹 133위인 왕정훈은 이번 주 순위에서 90위 안쪽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한국 선수 가운데 상위 2명이 나가는 올림픽 경쟁에 안병훈(24위), 김경태(48위), 이수민(75위)에 이어 왕정훈까지 가세하게 됐다.

올해 3월 히어로 인디언 오픈에서 공동 2위에 오르며 두각을 나타낸 왕정훈은 2013년부터 아시안투어에서 주로 활약한 선수다. 아시안투어 주요 성적은 2014년 두바이오픈 준우승, 지난해 월드클래스 챔피언십 3위 등이다. 올해 아시안투어와 유럽프로골프 투어가 공동 개최된 인디언 오픈 준우승 경력이 있으며 이번 우승으로 2018시즌까지 유럽투어에서 활약할 수 있게 됐다.

만 20세 256일인 왕정훈은 이번 시즌 유럽프로골프 투어 최연소 우승자가 됐다. /연합뉴스

15.5m 이글퍼트 발판 '연장 불패'

15개월만의 2승

재미등포 제임스 한(35)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연장전 끝에 15개월 만에 두 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제임스 한은 9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웨일홀로 골프클럽(파72·7575야드)에서 열린 웰스파고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3개,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를 적어낸 제임스 한은 로베르토 카스트로(미국)와 함께 공동 1위로 경기를 마쳐 18번홀(파4)에서 열리는 연장전에 돌입했다.

제임스 한은 침착하게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고 두 번의 퍼트에 깔끔하게 성공해 파를 기록, 우승을 확정했다.

반면 카스트로는 티샷에서 공을 해져드에 빠트리며, 두 번째 샷은 관중 사이에 빠져 발타를 받는 등 난조를 보이다 결국 보기를 기록했다.

제임스 한의 생애 2번째 PGA 투어 우승이다.

지난해 2월 노던 트러스트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지 약 15개월 만이다. 그는 당시에도 연장전 끝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당시 제임스 한의 우승은 프로골퍼의 길을 가기 위해 골프용품 매장고 신발 가게에서 힘겨게 일하는 등 '눈물 젖은 빵'의 설움을 날린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전날 공동 3위를 기록한 제임스 한은 이날 7번홀(파5)에서 약 15.5m 이글 퍼트에 성공하면서 도약의 발판을 다졌다.

후반 들어서는 12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냈지만 15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

